

현대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말이다. 생각건대, 오래 지속된 당쟁과 가림주구(苟劔誅求)에 시달려 오던 우리 조상들의 심정으로는 10년이란 참으로 긴 세월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그만한 세월이 흐른다면 세상 인심은 물론 주변의 문물과 자연 환경까지도 탈바꿈을 하여 어쩌면 좀더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그런 말로 표현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10년이란 세월은 과거의 100년 또는 200년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낳는다. 과거 같으면 100년 또는 200년이 걸려도 성취됐을까 말까하는 발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급격한 파탄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10년이란 세월이다. 그 10년이라는 세월에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형편없이 퇴보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변화이든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이든 간에 오늘날의 생활 모습은 옛날과 달리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변화를 잘 감당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복지사회로 만들 수도 있고, 잘못 감당하면 수렁에 빠진 무법 사회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 '80년대의 한국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때, 여름철이면 흔히 짚신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지요. 우리 집이 특별히 가

난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다녔지요. 부자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지도 않았읍니다. 비싸고 아까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추석 때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먼 곳에 돈벌이를 가신 아버님께서 고무신 한 켤레와 운동화 한 켤레를 사 보내 주셨읍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 주거나 해주신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죠.

고무신을 신고 자랑삼아 어느 날 학교엘 갔읍니다. 그런데 새 신발이라 발가락이 아프고 뒤통치에 물질도 생기고 해서 신장에 넣어 두고 놀았죠.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 왔을 때, 할머니께서 마당에 들어선 나를 보시고 아침에 신고 간 고무신은 어디에다 두고 왜 맨발로 들어 오느냐고 하셨읍니다. 나는 그제야 아침에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읍니다. 부랴부랴 학교에 다시 가 보았더니 고무신은 외롭게 그 신장에 그대로 얹혀 있었읍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골의 가난이 어린 아이들의 맘을 비틀어지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 군용 차량이 우리 동네 앞을 줄을 지어 지나갔읍니다. 자기네 나라로 퇴군하는 일본 군대를 신고 부산으로 향해 가는 것이었읍니다.

어린 우리들은 한길에 나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헤이 따이상 간빵 조포 구다사이(군인 아저씨 건빵 좀 주십시오)”라고 외쳐댔읍니다. 그러면 일본 군인들은 건빵 주머니를 장난삼아 길에다 내던졌읍니다. 아이들은 한길에 흩어진 건빵을 주으려고 헤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였읍니다. 그런 꼴을 본 일본 군인들은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좋아하며 즐기고 있었읍니다.

일본군이 물러간 뒤 얼마 후에 키가 크고 코가 큰 미국 군인이 바가지 같은 모자를 덮어쓰고 차에 실려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읍니다. 군정이 시작되던 때였죠.

어린 우리들은 이번에는 “할로우 주잉감 기브미(여보세요, 껌 좀 주세요)”라고 외쳤읍니다. 그러면 그들은 껌, 초코렛, 비스킷 등을 던져 주면서 그걸 주우려고 덤비는 아이들을 보고 꺾꺾거리면서 좋아했지요.

그때의 일본 군인들이나 미군들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머리에 떠오르면, 지금도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죠.

오래지 않아 우리는 또 한 차례의 전쟁을 겪었읍니다. 바로 6.25전쟁이지요. 중학교에 들어간 달을 겨우 공부한 후였읍니다. 그때는 5월 입학이었으니까요. 학교는 미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6년을 우리는 모두 거리에서, 산에서, 교장 선생님의 사택 마당에서, 천막 교실에서 사과 껌이나 쓰레기통을 깔고 앉아서 공부를 했읍니다.

우리 고향은 전쟁을 겪지 않은 후방이었지만, 동네 앞 신작로에는 밀려오는 피난민의 행렬, 후퇴하는 국군의 부대가 수없이 내려 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아 왔었죠.

이제는 그 신작로의 부분 부분이 경부 고속 도로로 덮여지고 이따끔씩 지역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나 택시들이 그 길을 다닐 뿐입니다.

이것은 지금 40대의 중반을 넘기는 한 대학 교수가 어린시절을 기억하면서 한 이야기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난 20~30년 간이라는 시간은 과거 수 백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 풍요를 단숨에 가져다 준 기간이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수 백년에 걸쳐 축적해 온 우리 조상들의 값진 정신적 유산들을 눈깜짝할 사이에 허물어 버리게 한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